

직업병 예방 감시를 위한 조언



대한산업보건협회전문위원
차 철 환

지난 10여년전에 산업현장에서 근로자가 의식하지 못한 가운데 발생하였고 그 피해가 오랜 시일을 두고 누적되어 온 것이 고전적 수은중독 사건이었다. 첫 수은중독 집단발생에 관한 역학적 조사는 경기도 이천에 소재한 모 형광등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1988년 7월 2일 실시되었다. 이 조사는 우리 나라 수은중독사의 고질적인 은둔상태를 백일하에 드러내놓은 획기적인 사건이었으며, 예외없이 마스크의 플래시를 받으며 사회의 화제거리로 등장했다.

한국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 제도는 1970년대 초부터 정착하게 되면서 해마다 수십만 명의 건강진단을 실시해 왔다. 이중 직업병 유소견 판정을 받은 근로자가 해마다 만여명씩 쏟아져 나온 것인데 이들의 70%가 진폐증이었고, 20%가 소음성 난청이고, 5%가 기타로 밝혀진 것이다.

이와 같이 많은 직업병 환자의 색출에도 불구하고 수은중독이 공식 보고되거나 발표된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첫 수은중독환자가 1987년에 발견된 것이다. 그것도 직업병을 전공한 사실이 없는 가정의학 수련 의사에 의해서 말이다.

성남시에 소재하고 있는 한미병원(현 인하대병원)에서 가정의학 전공의로 수련중에 있는 의사가 1987년 6월 27일 환자 이 모군을 맞아 진찰을 했으나 바른 진단을 내리기가 무척 어려웠다. 어쩔 수 없이 가능한 모든 검

사방법을 동원해 보았지만 판정을 내릴만한 근거가 발견되지 않아 고심하다가 무의식결에 직업을 묻게 되었다.

환자는 모 형광등회사 진공배기 일을 한다고 털어 놓았다. 근로자가 다루는 물질중에 수은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의사의 머리에 떠오른 것은 예방의학 강의에서 들은 적이 있는 일본의 유명한 미나마타 사건이었다. 수은이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줄 것이라는 단서를 잡은 것이다.

의사는 관심밖의 일을 되새기며 책을 찾아 맞추어 보니 증상이 근사치로 접근하고 있음을 알고 다시 혈액을 채취해 검사실에 의뢰했더니 검사가 불가능하다는 통고를 받게 되었다. 어쩔 수 없이 여기저기 수소문 끝에 모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확실한 수은중독이란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의학의 거성 히포크라테스와 산업의학의 원조 라마찌니도 환자를 맞아 이름을 물은 다음에는 꼭 직업을 물으라고 했다. 질병을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의사가 임상진료에서 직업을 형식적으로 묻거나 의무기록에 나타난 상황만으로 방치하기가 쉽기 마련이다.

환자는 입원하여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우연히 병문안차 찾아온 공모(28세), 김모(27세)군과 의사가 마주치게 되었다. 이들은 같은 직장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알고 혈액을 채취하여 검사를 의뢰했더니 역시 입원환자

와 동일한 수은중독임이 판명되었다. 이러한 사연이 있는 뒤에 저자가 소장으로 재직하고려대 환경의학연구소는 노동부로부터 수은취급업소의 보건관리 대행기관업무를 수행토록 선정되어, 형광등회사의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국내에 산재하고 있는 수은취급 전 사업장의 역학조사에도 나서게 되었다.

환경의학연구소가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은연중에 알려져 있었고, 일부 민원 보도진은 조사 초안이 작성되고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알게 되었다. 당시의 역학조사는 노동부에서 의뢰한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소는 해당부서에 결과보고를 해주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보도진은 은근히 달라고 떼를 써 온 터였다.

이 무렵 부산에서 예방의학회가 개최되어 모든 교실원들은 학회 참석 준비에 바쁜 며칠을 보낸 다음 부산행 기차를 탔다. 갑자기 기차내 방송뉴스에서 수은취급 근로자 18명(대상자의 7.1%)이 수은중독자로 밝혀졌다는 보도다. 이러한 사실은 연구소내에서도 직접 참여한 3명 정도만이 알고 있는 사실인데 마스크가 특종으로 다루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쏟아진 물이라 되물릴 수 조차 없었다. 뒤에 알게된 일이지만 조사보고서 작성의 꾀새를 알아챈 모 기자가 이 자료를 꺼내 복사해간 것이었다. 여름철 기사가 마른 시기인지라 마스크의 화포는 연속되어 수은중독은 물론 카드뮴, 크롬 등 과거의 자료들을 샅샅이 읊조리며 발사됐다. 이통에 해당부서인 노동부는 초상집이 되었고 화집에 항의전화가 빗발쳤다. 그러나 엇지른 물을 다시 주어 담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수은중독, 오랫동안 수은을 다루는 업체내에서 도사려온 독버섯이었다. 이것이 마스크

의 세례로 치장한 옷이 드디어 벗겨지고 알몸을 드러낸 것이다. 만일 이 보고서를 도둑맞아 마스크에서 들고 일어나지 않았다면 노동부가 근로현장의 단속을 강화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비단 수은중독만이 아니고 산업장의 모든 유해환경 및 직업병 문제가 이것이 계기가 되어 전환점을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의 IMF시대라는 경제위기를 맞이하며 사업장에서의 산업보건 문제는 어려운 경제상황 일지라도 경제적 논리나 인간 존중의 논리 양면에서 과거의 직업병 발생 사례를 경험삼아 매우 심각하고 산업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정부의 정책 입안자나 근로자, 사업주, 산업보건 관련자 등 모두는 재인식해야 한다. 향후 우리 나라에서의 산업보건 발전에 관하여 몇가지를 조언하고자 한다.

첫째, 근로자의 건강보호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의식이 전환이 있어야 한다. 즉, 건강한 숙련공이 작업능률을 향상시키며 생산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직업병의 사후처리로부터 직업병 예방을 위한 유해요인 감시체계를 효과적으로 극대화 시켜야 한다.

셋째, 사업장 단위에서 노사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산업보건 예방사업의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업종별, 지역별 직업병 예방 감시체계 구축과 운영방안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산업보건제도상에 산업의학 전문의의 활용방안과 업무 내용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다섯째, 유해요인 노출평가 및 직업병 진단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적인 정도관리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여섯째, 직업병 조기진단 방법의 개발과 건강보호 프로그램개발, 산업보건 사업의 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게끔 민간전문기관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 육성이 필요하다.